대법제자 송사

대법제자들
중원에서 박해당하네
천지에 도(道) 없으니 썩은귀신 날뛰는구나
정법의 크나큰 기세 눈앞에 있나니
법은 인간세상을 바로잡으리로다

大法徒

重任擔在肩

救度眾生講真相

清除毒害法無邊

神路不算遠

二零零三年十月一日

대법제자들
중책을 어깨에 짊어졌네
중생을 구도하며 진상을 알리는구나
독해를 말끔히 제거함에 법은 끝이 없나니
신의 길은 멀지 않도다

2003년 10월 1일

法輪常轉

大法圓容乾坤正
法王慈悲造大穹

二零零三年十月三日

큰 겁

법이 거대한 창궁 바로잡고 쌓인 먼지 털어내나니
아득한 천지 도처에 봄이로다
유유한 만고의 거대한 기세 지나간 후
새 우주의 불도신을 다시 보리라

2004년 3월 8일

洪劫

法正洪穹除舊塵
天地茫茫處處春
悠悠萬古洪勢過
再看新宇佛道神

二零零四年三月八日

法輪(파륜)은 항상 도나니

대법이 원용하니 건곤이 바르고
법왕은 자비로워 대궁을 만드네

2003년 10월 3일

洪誓大願

歷盡滄桑洪願了
歲月蹉跎一念中

二零零三年十月七日

전륜(轉輪)

백년의 붉은 왕조 줄곧 칼을 휘두르나니
건곤이 거꾸로 돌아 중화를 희롱하네
지금은 붉은 꽃 성한 것을 똑똑히 보지만
훗날에는 연꽃이 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2004년 3월 5일

轉輪

百年紅朝一路殺
乾坤倒運戲中華
看明此時紅花盛
可曉它日開蓮花

二零零四年三月五日

큰 맹세 큰 소원

세상 변천 다 겪고 크나큰 소원 이룩하나니
길고 간고한 세월도 일념중이로다

2003년 10월 7일

救大穹

古今不曾有
將來天地久
看恆古大穹蒼
誰還敢再下走

二零零三年十月十二日

두려울 것 뭐냐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놈은 붙잡을 것이요
생각이 바르면 사악은 무너지리라
수련하는 사람은 법을 간직하고 있다네
정념을 발하면 썩은 귀신 터져버릴지니
신이 세상에서 법을 실증하고 있음이로다

2004년 2월 29일

怕啥

你有怕　　它就抓
念一正　　惡就垮
修煉人　　裝著法
發正念　　爛鬼炸
神在世　　證實法

二零零四年二月二十九日

대궁을 구하다

고금에 있어본 적 없으나
장래는 천지가 영구하리라
영원무궁할 큰 창궁을 보고
누가 감히 또다시 아래로 내려갈쏘냐

2003년 10월 12일

劫數 元曲

中原大地
五千文明
風浪不止
西來幽靈
害眾生
破古風
人快醒
神州大法開行

二零零三年十一月十一日

천문(天門)은 이미 열렸노라

부처 은혜 크고도 넓어 중생을 제도하고
건곤을 다시 창조하고자 대법이 왔네
궁체와 천지를 견고히 하려는 크나큰 소원으로
작은것 바로잡고 큰것 바로잡고 삼재도 바로잡노라
세상사람 깨어나면 정념이 나오리니
만고의 천문은 이로부터 열리리라

2004년 2월 28일

天門已開

佛恩浩蕩度眾生
再造乾坤大法來
洪願穹體天地固
正微正洪正三才
世人能醒正念出
萬古天門從此開

二零零四年二月二十八日

액운 원곡

중원 대지
오천 년 문명
풍랑 멎은 적 없네
서쪽에서 온 유령
중생을 해치고
고풍(古風)을 파괴하나니
사람들아 어서 깨어나라
신주에 대법이 전해지고 있도다

2003년 11월 11일

危

世風日下眾助流
爛鬼帶頭人跟走
我爲世人愁
人不爲己憂

二零零三年十一月二十日

정신을 차려라

중생이여 어서어서 깨어나거라
중원에 함정을 설치했구나
모두 법을 위해 왔거늘
왜 이치가 분명치 않는가

2004년 2월 17일

神醒

衆生快快醒
中原設陷阱
都是爲法來
何故理不清

二零零四年二月十七日

위험

세풍 날로 나빠짐은 뭇사람 부채질 탓이라
썩은귀신 앞장서고 사람들 뒤따르네
나는 세상사람 걱정하건만
사람들은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구나

2003년 11월 20일

蓮 元曲

萬朶淨蓮我栽
嚴寒傲雪齊開
天晴滿園春來
仙枝百態
香風沁飄天外

二零零三年十二月一日

사도은(師徒恩)

미친 사악 4년 돌풍에
키를 단단히 잡고 항로를 잃지 않았네
대법제자는 마난을 겪으며
중압(重壓)에도 의지 변치 않았네
사제는 정을 따지지 않나니
부처의 은혜 천지를 녹이네
제자가 정념이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回天力)이 있노라

2004년 2월 1일

師徒恩

狂瀾四年颶　穩舵航不迷
法徒經魔難　重壓志不移
師徒不講情　佛恩化天地
弟子正念足　師有回天力

二零零四年二月一日

연(蓮)　원곡

만 송이 청정한 연꽃 내 심었나니
엄동설한 눈 속에도 일제히 피어나네
하늘 맑게 개고 온 동산에 봄이 오니
어여쁜 자태 백 가지라
향기는 바람에 실려 하늘 너머로 풍기네

2003년 12월 1일

斷 元曲

修不難
心難去
幾多執著何時斷
都知苦海總無岸
意不堅
關似山
咋出凡

二零零四年一月一日

어려움

천신만고 십오추(十五秋)라
누가 알리요 정법의 고생과 시름을
오로지 중생을 구도하기 위함이나니
홍미(洪微)를 벗어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으리라

2004년 1월 22일

難

千辛萬苦十五秋
誰知正法苦與愁
只爲眾生能得救
不出洪微不罷休

二零零四年一月二十二日

끊다 원곡

수련은 어렵지 아니하나
마음 버리기 어렵노라
그 많은 집착 어느 때나 끊을꼬
고해(苦海) 끝없음을 모두 알거늘
의지 확고하지 못하면
고비는 산과 같나니
어이 속세를 벗어나랴

2004년 1월 1일

香蓮

淨蓮法中生
慈悲散香風
世上灑甘露
蓮開滿天庭

二零零四年元旦

요고대(腰鼓隊) 원곡

요고진은
법 중 신(神)이라
법고(法鼓) 소리소리 다 眞善忍(쩐싼런)이니
삼계에서 사악을 제거하고 세인을 구함이라
당당한 모습과 정념이 천문을 진동하나니
썩은 귀신들 어디에 숨으랴

2004년 1월 22일

腰鼓隊 元曲

腰鼓陣
法中神
法鼓聲聲都是真善忍
三界除惡救世人
雄姿正念震天門
爛鬼哪遁

二零零四年一月二十二日

향연(香蓮)

청정한 연꽃 법에서 생기고
자비는 향기를 풍기네
세상에 감로를 뿌리나니
연꽃 피어 하늘에 가득하네

2004년 원단

法正人間時

爛鬼已滅絕
黑手化膿血
世人幹的事
必遭惡疫虐

二零零四年一月一日

슬퍼하지 말라

몸이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라
정념정행하면 법이 있도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집착한 일 얼마이더냐
사람 마음을 덜면 악은 스스로 패하리라

2004년 1월 13일

別哀

身臥牢籠別傷哀
正念正行有法在
靜思幾多執著事
了卻人心惡自敗

二零零四年一月十三日

법정인간 시

썩은귀신 이미 멸절되고
흑수는 피고름으로 변하리라
세상사람 저지른 일로
필연 모진 역병의 재앙 당하리라

2004년 1월 1일

蠢 元曲

狂狂狂
跳上樑
烏鴉遮太陽
蠢惡謊
大曝光
忌火攻心現原象
蟾蜍躥下油湯

二零零四年一月八日

어리석음 원곡

미치고 미치고 미쳐서
들보에 껑충 뛰어 오르네
까마귀가 태양을 가리다니
어리석음 사악함 거짓말
백일하에 드러나네
질투의 불길 마음에 붙어 원래 모습 드러나
두꺼비 풀쩍 끓는 기름 가마에 뛰어들리라

2004년 1월 8일